

그의 살림집은 삼 층에 따로 있었지만, 그는 거의 24시간을 가게에서 지냈다. 그의 부인은 가게에 내려오는 일이 드물었다. 용건이 생기면 가게와 안집으로 통하는 인터폰을 이용했다. 가끔씩 그의 자식들이 가게로 무언가를 의논하러 들렀는데, 그의 머느리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진열된 운동기구들이랑 그와 내가 함께 쓰는 어두운 방을 열람하듯 둘러보곤 했다. 그녀는 목소리가 조용한 편인데, 약간 느려 더욱 차분하게 들리는 말투로 시아버지인 그에게 할 말을 딱딱따박다 하는 아무진 성격이었다. 굳이 이 가게에 지

전 씨가 못마땅한 듯 나를 나무랐다. 먹을 거라면 뭐가 됐건 환장을 하는 개의 하리통은 옆으로 툭 붙겨져 있었다. 개는 입 안에서 막 뱉어놓은 수박씨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나와 전 씨를 올려다보더니 쩍쨍하게 먹은 것을 물고 달아났다. 나는 순두부국에 밥을 절반만 말고 나머지를 전 씨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내가 남긴 밥을 국그릇에 마저 부었다. - 목이 왜 이리 빠근하지, 잠깐 가게 문을 닫자. 나는 벌건 입술을 핏고 있는 전 씨의 긴 헛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 밋밋해진 구두에 10센티 굽을 붙이자,

### 구두는 다른 신발이 되었다.

### 나는 내 두 다리를 떼어내고

### 건강한 다리로 붙여 넣는 상상을 해보았다.

사람이 필요해요, 아바님? 그녀가 나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약간 높여 말하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그에게 다소곳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던 날 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전 씨는 나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어디선가 사들여 스포츠용품점 귀퉁이에 이어붙인 컨테이너는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는 중고였다. 군데군데 철이 까이고 검은 녹이 슬어 있는 사각박스는 나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람을 사서 컨테이너에 새로 페인트칠을 했다. 흠집들이 갑갑같이 사라졌다. 그는 컨테이너의 실내를 직접 꾸렸다. 칸막이를 하여 가게와 방을 만들고 관 같은 목침대를 짜 비좁은 방 귀퉁이에 놓았다. 침대를 놓은 맞은편에 녹슨 수도꼭지와 싱크대가 있는 걸로 보아 전에 쓰던 사람이 주방으로 사용한 듯했다. 창문이 없는 컨테이너 안은 지하처럼 어둡고 습했다. 빛이랴곤 두꺼운 절문 틈새로 드는 조각별이 전부였다. 문은 딱 출입문 하나뿐이다. 원래 있던 출입문과 마주본 창문을 그가 칸막이를 하는 작업 중에 폐쇄했다. 단단히 못질을 한 창문이 갑갑했지만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그가 아니었다더라면 내가 구두센터 주인이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수, 수선 맡긴 구, 구두를 찾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 하는 수 없지, 바쁜 일부터 해치워라. 사람이 태어나서 밥을 먹고 사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은 일이다. 전 씨는 군말이 없었다. 나는 컨테이너로 돌아와 재료상자에서 10센티 구두 굽을 찾다가 문득 공중전화부스 쪽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 여자는 평평잡한 원피스 치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가로줄 불빛이 일제히 여자에게로 쏠리자, 광대뼈 언저리까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여자의 푸석한 얼굴이 드러났다. 여자는 사람인지 유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움직임이 적었다. 나는 여자를 엿본 문뜰에 눈 대신 귀를 가져다 댔다. 관창을 거리고 했잖아--거긴 따뜻하니. 바람결에 실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자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웅크리고 앉은 채 밥을 씹 듯했다. 처음 본 얼굴이었다. 차림새로 보아서는 이 근처 어디에 사는 것 같았다. 가방을 들고 있지도 양을 뺨다려 슬리퍼 안에 풍 빠져 있는 듯한 발은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나는 아무렇게나 늘어진 구두들을 정리하고 어질러진 구두와 통들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 다시 밖을 내다 보았다. 여자는 가고 없었다.

- 점심 먹어야지. 전 씨가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의 아내가 외출을 했을 때만 나랑 밥을 먹었다. 그것도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고도 점심약속이 잡히지 않을 때만 나를 찾았다. 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를 따라 분식집으로 갔다. 밥을 기다리는 동안 만 원짜리 네 장과 오천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열다섯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 달에 세 번으로 나누어 내는 밥값이다. 돈을 챙긴 아줌마가 계산프라이 세 개를 서비스하며 내다 주었다. 나는 그중 한 개를 식당 밖에서 열정거리는 유기견에게 던져주었다. - 사람이 먹는 걸 함부로 짐승에게 주는 거 아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부스로 갔다. 수화기를 들고 재발신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내음이 끝난 후까지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머리가 험클어졌고 눈빛에 초점이 흐렸고 시퍼런 발등을 드러낸 맨발벗은 여자는 어디에 전화를 걸려고 했던 걸까. 나는 컨테이너로 들어와 누군가 맡겨놓고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여자구두를 꺼냈다. 한쪽 구두 속이 울퉁불퉁했다. 나는 형질 쪼가리를 문쳐 구두 속에 집어넣었다. 누군가 밟긴 지 이 년을 넘기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구두였다. 유일한

게 구두 주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구두를 찾아가지 않는 걸 보면 구두 주인은 죽었는데도 모른다. 나는 하늘색 구두에 광을 내기 시작했다. 구두는 전등처럼 빛났다. 실내가 환해졌다.

바퀴를 단 컨테이너는 넓은 도로를 벗어나 어느 새 해변도로로 접어들었다. 수평선 끝으로 물린 노을이 온통 덩어리져 있다. 왼쪽으로 조각조각 계단식 밭이 있는 야산이 보인다. 한참을 달려 담이 없는 집 몇 채가 모여 있는 마을로 들어선다. 해변으로 이어진 소나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소나무 사이로는 반질반질한 황토흙 길이나 있다. 길에서는 먼지 한 점 일지 않는다. 전 씨는 목침대 여러 곳에 못질을 해놓고 거둬 집대를 흔들며보았다. 그러고도 못미더운 듯 육중한 엉덩이를 침대 위에 텅텅 부러고 있었다. - 됐다. 이젠 잡자리가 훨씬 편할 거다. 그는 내가 그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가 바지를 벗고 침대 위로 누웠다. 그는 옷을 벗을 때면 늘 바지를 먼저 벗는다. 나는 담요 속으로 기어 들어가 불편한 몸을 껴안고 싶었다. 지렁이처럼 굴곡이 없는 내 몸은 신체에 두 개 있는 모든 것의 균형이 맞지 않다. 눈, 콧구멍, 귀, 유방, 팔, 특히 현저하게 가늘고 굵고 길고 짧은 게 드러나는 두 다리. 그는 보통사람들과 다른 기이한 내 몸을 관찰하듯 들여다본다. 나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두 눈을 감는다. 40킬로그램 밖에 안 되는 내 몸을 앞뒤로 뒤작거리던 그가 내 황문 언저리에 차가운 껌을 바르고 성기를 밀어 넣으며 아프냐고 묻는다. 그의 성기는 흐물흐물한 편이다. 여자 손가락처럼 매끈하고 가는 내 성기가 번데기처럼 웅크려둔다. 내가 견디는 동안 그는 숨을 헉헉거리며 또 다시 아프냐고 묻는다. 그의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는 순간이다. 아프다고 대답하자 그가 화를 낸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냐고 새끼야. 나는 속으로만 대답한다. 날카로운 송곳 끝이 심장을 푹푹 찌르는 것 같다고. 그리고 죽은 듯이 얼드러 밖의 소리들을 굶어모은다. 사나운 힘이 보도블록을 때리는 소리, 그의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그를 찔하는 소리, 미친 듯 질주하며 울러대는 자동차들의 클랙스 소리, 소리들의 틈새로 다급하게 공중전화 버튼을 눌러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하다.

명해 보고 싶었다. 눈에 초점이 없는 여자를 생각했다. 얇은 원피스를 떠올렸다. 시퍼런 발등을 떠올렸다. 그의 머느리를 떠올리고 구두 굽을 높여달라고 가게에 찾아왔던 예쁜 여자도 떠올렸다. 몸에서 뜨거운 것이 활락거렸다. 그것은 어젯밤과는 달리 목을 대를 차고 올라와 눈으로 속구쳤다. - 시, 신발을 찾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 폴에 사내새끼라고. 전 씨가 삼겹살 컨테이너를 나갔다. 두꺼운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몸을 씻기 시작했다. 겨울에 몸을 비취가며 흡집투성이의 구두에 광을 내듯 구석구석을 박박 문질렀다. 두 다리를 겨울에 바짝 대보았다. 몸을 살짝 옆으로 돌리고 서자 다리의 굵기와 길이가 같이 보이는 듯도 하다. 오랫동안 샤워를 한 나는 진열대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들을 반듯하게 정리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가져온 고무나무 잎을 마른걸레로 닦고 넓적한 잎이 싱그러워 보이게 잔뜩 물을 부여했다. 담요도 툭툭 털어 반듯하게 깔아두었다. 나는 분병 손질 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리 부르셨습니까, 보도블록을 뛰어다니던 남자의 걸음소리가 오늘따라 활기차게 들렸다. 밤이 깊어갔다. 누군가 분식집 담배막에 뉘엿뉘엿 음식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컨테이너 밖에 기대고 선 채 오랫동안 오줌을 찼다. 분식집 건너 '성인용품'이라고 새긴 도마만 한 간판 아래 서 있던 남자는 도둑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쪽문 안으로 사라졌다.

### - 저, 저기요.

### - 나, 날이 추운데.

### 여자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 태연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다. 딱딱하게 자동차들이 지나다쳤다. 잠들기 딱 좋은 밤이다. 잠결에 자동차 소리를 따라가면 가끔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자동차들은 잠결에만 나를 이리저리 데려간다. 그래서 저 소리를 들어야만 잠이 오는지도 모른다. 운전면허도 없는 내가 반듯하게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일처럼 신나는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어느 땐 앞차를 따라가고 때로는 컨테이너가 앞장선다. 구두 굽을 붙여 만든 액셀러레이터만 밟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번쩍번쩍 광을 내놓은 구두들이 오색으로 등을 켜 실내가 환해지면 머리맡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를 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 자꾸 오한이 들었다. 나는 얼굴까지 뒤집어썼던 담요를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 무렵 단골이 밧기고 간 밤색 구두를

꺼내들었다. 천근만근 가라앉은 몸을 움직여 침대 아래 처박아 두었던 약품 통들을 꺼냈다. 약품들은 오래전에 쓰다 두었던 거라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다. 약품은 제가 지닌 독성 때문에 변질된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구두를 염색할 약품을 배합했다. 배합한 약품을 천천히 구두에 발라나갔다. 약품들은 독한 냄새를 내뿜었다. 화공약품이 내 몸 구석구석으로 스미는 듯 뼈와 살과 심장에 따끔거렸다. 얼룩은 강했다. 자국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다섯 번씩이나 배합한 약품을 덧바른 뒤에야 가까스로 얼룩이 가려졌다. 얼룩이 사라진 순간 나는 혼잡하듯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제 여자가 밧기고 간 구두를 꺼내 굽을 때어냈다. 밋밋해진 구두에 10센티 굽을 붙이자, 구두는 다른 신발이 되었다. 나는 내 두 다리를 떼어내고 균형미 넘치는 건강한 다리로 붙여 넣는 상상을 해보았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여자를 끝까지 쫓아가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얘기가 좀 해보라고 캐물을 수 있었을 테다. 나는 자꾸 컨테이너 출입문 쪽으로 눈을 가져갔다. 여자가 험클어진 머리를 주렁거리며 고개를 숙 들어밀 것 같았다. 그리고 시퍼런 발등을 가게 안으로 머뭇머뭇 들여놓을 것만 같았다.

### 달

러왔던 황토흙 길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 바다에서 내 머리통만한 게들이 바글바글 기어 나온다. 손에 쥌 핸들이 갑자기 뻣뻣해지며 말을 듣지 않는다. 숲에는 맨발 벗은 여자가 서 있다. 초점이 흐린 여자의 눈빛은 따뜻하다. 내 흉한 물결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도 민망해하지 않을 것 같다. 수십 마리의 게들이 일제

가치런히 구두를 세워놓고 담요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차도에서 건너온 소음이 기우뚱 컨테이너를 흔들었다. 트럭이 지나간 모양이었다. 샤워가 잠잠해지고도 꽤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간절하게 밖의 기척을 기다렸다. 조용했다. 유기견이 연거푸 꼬리를 흔들며 대는 소리가 들려온 후 조용하고 느린 발걸음 소리가 머리맡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문뜰으로 밖을 살폈다. 그 여자였다.

### 여

자는 컨테이너 옆에 우두커니 서 있다. 오늘은 전화를 걸러 나온 것도 아닌 듯하다. 컨테이너 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리에 어거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고 싶어 환장했다. 새벽부터 재수 없게. 여자가 휘청거리며 인도로 올라선다. 트럭기사가 목안에서 끌어올린 가래침이 여자 앞으로 떨어진 순간, 트럭이 둔중한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난다. 트럭이 일으키고 간 바람에 원피스 자락이 여자의 몸에 착 달라붙는다. 여자의 배는 만사이다. 임신부가 잠 못 이루는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나기엔 새벽 공기가 차다. 구겨진 담요를 목침대 위에 가치런히 펴놓는다. 월형한 원피스의 해바라기 꽃문양 때문에 그 여자란 걸 알 수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온다. 여자가 차로 내려선다. 트럭이 멈춰서는 소